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늘푸른 도서관

■ 청소년 지역사회 문화공간

김수연, 이상준, 이호영 인턴 청소년기자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청소년들은 대부분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늘푸른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보았다.

늘푸른 도서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있다. 1층은 유아자료실, 장난감 놀이방과 멀티실이 있고 2층은 아동자료실, 다목적 강당과 문화교실이 있다. 3층은 일반자료실, 보존서고와 휴게실이 있다. 지하 1층도 있는데 지하 1층에는 탁구장과 문화누리교실이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회원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회원증은 시립도서관, 늘푸른 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작은도서관 (총 13곳)에서 만든 회원증 한 개로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늘푸른 도서관의 이애라 사서를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다.

주소: 군산시 하나운로17(나운동 153-8)
운영시간: 평일(월~금) : 오전9시~밤10시
(1,2,3층 자료실은 밤10시까지 운영, 장난감 놀이방은 임시 휴관)
토요일 : 오전9시~오후6시
전화번호안내 : 063-454-5980~4

△ 도서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 준다면?

청소년 지원 도서나 추천 도서가 있다고 답변 했다. 그러한 권장 도서를 읽으면 다각면에서 책읽기가 가능하다. 요즘은 sns에 자주 등장하는 추리소설이 인기가 많다.

△ 책을 읽는 거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나?

문화 프로그램, 자원봉사 그리고 사서 직업체험 등 할 수 있는 활동은 많다. 도서관 이용교육. 인문독서토론, 사서실습, 독서연구, 기관이 열리고 활동을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축소 운영되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인원제한 2m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중이다. 각 상호대차로 책을 도서관들끼리 공유해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더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 할 때는 북 드라이브 스루, 줌 영상 프로그램 등 많은 노력을 기해왔다.

△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체험 교육과 야외 독서, 기관 연계, 2층 공원을 활용한 행사 등 더 많은 활동들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방송국을 함께 가보는 진로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취재 후기

이렇게 도서관은 청소년들을 위해, 시민 전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다. 인근 학교로는 서해초등학교와 군산동원중학교가 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자.

김광훈의 청소년 숲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온 숲이 필요하듯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과 지역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숲에서 균형 있게 자란 나무가 다시 숲을 무성하게 만들 듯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란 청소년은 다시 지역을 살린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 내 학교, 청소년수련시설이 온 힘을 다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청소년프로그램은 학교와 학교 밖의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요즘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활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관련 정책이 해가 지날수록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꿈꾸고, 찾는, 청소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 밖 활동이 대학 진학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는 교육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대학 진학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도 바쁜 학교생활에 굳이 학교 밖 활동을 더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밖 활동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도 있으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등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와 연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참여 의지를 심어주고 활동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학교 밖의 삶 또한 그들의 모습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은 3년 전부터 지역의 중학교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인력풀을 활용해 강사들을 모집하거나 청소년 지도사가 직접 강사가 되어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무언가를 지시하기 보다는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등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응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동안에 지역사회가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장학금 전달이나 학비 보조, 통학의 편의 제공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진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에 나설 수 있고, 그런 과정은 각급 학교의 학사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의미를 찾고 기획, 준비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되어야 청소년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힘을 합치기를 소망한다.

/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최근 코로나19는 현대 사회에 빠지지 않는 팬데믹 현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2021년 11월 21일 백신 접종 현황은 완전 접종은 모든 시도에서 77%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국내, 해외 신규 합계 3,12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일 최종 해결방안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할 것을 발표했다. 총 6주 간격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방안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2021년 7월부터 방역을 해제했다고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는 방역 전환 준비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을 말한다.

1차 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은 코로나 식당 영업시간(카페포함)은 24시까지 가능한다. 또한 인원 제한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1차, 2차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 된다. 3차에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된다. 그리고 행사 집회 또한 변경됐다. 1차, 2차에는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경우 개별 수칙 가능, 2차, 3차에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 등교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 시행이 이루어진다. 유치원 또한 놀이활동, 신체활동을 진행한다. 초, 중, 고, 토의토론, 모둠 활동 수업 진행, 소규모 체험학습까지 가능해졌다.

이러한 위드코로나 방안으로 코로나 19가 없는 시대, 전과 같은 개방적인 사회의 활기가 불어오고 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해봤다.

[강호항공고 김민재 청소년 인터뷰]

Q. 위드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세요.

김민재: 늦은 저녁 까지도 모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또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데 경기 내에서 응원 소리가 들리니 경기에 몰입할 수 있었고, 활기를 불어준 것 같아요.

[전북여고 유채은 청소년 인터뷰]

Q. 위드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세요.

유채은: 저는 우선 청소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성인 분들이 있는 술집, 노래방 등은 더 빠르게 코로나가 퍼질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생각합니다.

[완주고 최호연 청소년 인터뷰]

Q. 위드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세요.

최호연: 저는 위드코로나에 대해 전면등교, 온라인 수업 뿐이 달라지는 점이라 생각하고 달라지는 점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생에게는 모둠 수업, 여러 활동이 진행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선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후기

각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위드코로나의 해결 방안 의도는 좋지만, 더큰 위기가 다가왔을때의 대책 방안도 필요한 것 같다.

/최유나 청소년 기자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구독신청 063) 230-5712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신문이 만들어 집니다.